

내부고발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 고발사건을 중심으로

김남일*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이 논문은 ‘삼성’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고발로 보고, KBS와 SBS의 텔레비전 뉴스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에서는 ‘일화적’ 보도가 두 매체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취재원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의 내부고발자 측과 삼성을 중심으로 검찰, 금융기관 등의 국가 권력기관이 대립하는 갈등구조가 나타났다. 보도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한 결과, 사건공시프레임·갈등적 뉴스 프레임·진실규명 촉구 프레임·양심고백적 프레임·사회혼란 야기 프레임 등 5개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건공시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양심고백적 프레임과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에서는 두 매체가 보도방식에 있어 차별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KBS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선호하며, SBS는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선호하고 있어 매체 소유구조에 따른 상호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두 매체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 등의 심층적 보도에는 매우 인색하며, 사건의 민감한 요소를 부각시킨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프레임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양심고백적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결과, 2007년 11월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삼성’ 관련 폭로를 계기로 양심고백적 프레임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제기가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KBS와 SBS의 내부고발 보도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태도보다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따라가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상파 TV방송은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을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어: 프레임 분석, 텔레비전 뉴스, 내부고발, 삼성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7년 10월 하순에 한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삼성’ 핵심부를 겨냥한 폭로가 있었다. 그동안 ‘삼성그룹’을 둘러싼 논의는 다양했다. 직장인에게는 한국 최고의 직장이자,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꿈에 그리는 회사였다. 한국 경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업으로서 적어도 반도체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한편으로는 노조가 없는 반노조 기업으로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 전직 검사 출신으로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인 법무팀장을 역임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내부 비리 의혹 폭로는 매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는 임직원의 내부고발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작 용기를 내 고발한 임직원들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 그 과정에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s)²⁾를 보는 시선은 극단적으로 나뉘어 사회적 투명성의 실현이나, 조직에 대한 일종의 배신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내부고발의 문제는 공적·사적 영역을 불문하고 부패와 관련되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문제이다. 즉 내부고발은 주로

1) 미국의 주간지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시카고대와 토론토대가 내부 비리가 터진 기업 230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부정행위 고발자 가운데 직원(employee)이 19.2%, 언론(16.0%), 정책 당국(16.0%), 애널리스트(14.7%), 회계사(14.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고발을 한 임직원 중 82%가 회사로부터 해고 압박을 받거나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승범, 2008.1.26).

2) 서구에서도 내부고발자는 소속 조직이나 집단의 정보를 밖에 알리는 사람으로서 부정적 표현으로는 정보제공자(informants), 고자쟁이(tattletales), 밀고자(snitches), 앞잡이(stool pigeons) 등으로, 긍정적 표현으로는 종을 울리는 사람(bell ringer), 등대지기(lighthouse keepers) 등의 공익적 행위로 불린다(박홍식, 2003, 146쪽). 이 논문은 김용철 변호사를 ‘내부고발자’로 보고 그와 관련된 보도뉴스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김용철 변호사의 개인적인 영역보다는 사건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고자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언론에 의해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미친다. 더구나 매체가 현실을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텔레비전이란 현실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뉴스 프레임은 텔레비전 뉴스가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기제라 할 수 있다(정재철, 2001, 261쪽). 그러므로 내부고발과 관련된 TV뉴스를 분석하는 것은, TV뉴스가 내부고발의 현실을 구성하고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한 시각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한다. 특히 이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라는 개인의 내부고발에 의해 거대기업의 비리가 폭로된 것으로, 이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하면 우리 사회에서 삼성의 위치뿐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이번 ‘삼성’ 비리의혹 사건도 대부분의 민감한 사건 보도와 마찬가지로 언론매체의 보도 행태에 대한 담론이 무성한데, 더욱 문제인 것은 ‘삼성’이 매체의 보도태도에 따라 ‘광고’를 통한 길들이기까지 하고 있다³⁾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성’의 내부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고발로 보고, 이에 대한 TV 보도뉴스를 프레임이론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프레임은 신화, 은유, 화술 등을 통해 문화의 심층구조에 내재해 사회구성원 간의 공유된 의미를 만들어내므로 문화적 신념체계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정의철·이창호, 2007, 90쪽). 내부고발에 대한 프레임 분석은 우리 사회의 공유된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내부고발의 순기능인 사회적 투명성 확보에 대한 전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2007.12.1~2008.1.7까지 ‘삼성’ 관련 광고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의 지면을 조사한 결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는 단 한 건의 광고도 실리지 않았으나, ‘조선일보’ 23건, ‘동아일보’ 15건, ‘중앙일보’ 12건으로 나타났다(백병규, 2008.1.11). 2006년 기준으로 삼성의 4대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비는 2,873억 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다(<http://www.adic.co.kr/stat/index.do>).

2) ‘삼성’ 관련 비리의혹과 김용철 변호사

현재 삼성은 2005년 기준으로 5대 재벌 일반 자산의 50.8%, 자본 총액의 45.9%, 매출액의 39.5%, 당기순이익의 46.2% 등 절반에 육박하는 ‘재벌 중의 재벌’이자 명실상부한 한국 제1위 기업이다(조돈문·이병천·송원근, 2008). 이러한 ‘삼성’에 대한 평가는 대략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압축 성장기의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고 IMF 외환 금융 위기 이후에도 한국 경제를 버티게 해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와 다른 한편 ‘삼성이 하면 뭐가 다르다’라는 자부심 속에서도 ‘삼성’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거대화된 기업 ‘삼성’이 국내 경제 환경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 초법적인 권력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한다(송원근, 2005, 35~37쪽). 이를 소위 ‘삼성공화국’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와 최강 자본 분과 ‘삼성’이 주도하는 독점자본 재벌 사이의 객관적 관계하에서 재벌의 이익이 유지되고 보호되는 현상을 말한다(송백석, 2007, 66쪽). 이러한 재벌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경영체제나 기업체제는 아니나, 최근 들어 재벌은 ‘정부 우위의 정부-재벌 지배 동맹체제’로부터 ‘정부와 재벌의 대등한 지배동맹체제’로, 나아가 ‘재벌우위의 재벌-정부 지배동맹체제’로의 이행을 재촉했다(홍덕률, 1998).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삼성’의 위치는 국가권력에 버금가는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성 성장의 그늘에는 자동차산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과 실패의 책임, 복잡해진 순환출자와 소유지배 괴리도의 확대, 금융부문의 비대화와 지배를 위한 산업·금융자본의 미분리,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경영과 무노조 경영신화, 불법 상속과 세습을 위한 지배구조 문제 등 다기한 사안들이 혼재해 있다(송원근, 2005). 이러한 ‘삼성’과 관련된 문제제기로는 지난 2001년 ‘삼성전자’의 탈세이혹을 폭로한 노민수 씨의 사례가 있었다. 그는 “삼성광주전자가 1994~1999년까지 김치냉장고와 진공청소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174억 원을 탈세했다”고 언론에 제보하였으나, 이 사건은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 잊혀졌다(김운의, 2001). 또한 ‘삼성’은 2005년 소위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관련 사건이 공개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등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되자 2006년에 이건희 회장의 사재 8천억 원을 사회에 헌납하기로 발표하였지만, 이는 ‘삼성’을 위시한 한국의 재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책임경영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의심케 했다.

더구나 최근의 ‘삼성’ 내부비리고발 사건은 2007년 10월 29일 김용철 변호사를 대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1차 기자회견, 11월 5일에 2차 기자회견, 11월 26일에 3차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으로 담론화가 되었다. 특히 김용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7년부터 ‘삼성’그룹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⁴⁾에 근무하다 2004년 9월 법무팀장을 끝으로 퇴직하였다. ‘삼성’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근무했던 구조조정본부의 위상은 삼성의 사장단 50여명 중, 20여 명을 배출시킬 정도로 이른바 ‘재계의 청와대’라 불린다(강준만, 2005, 41쪽). 1959년 비서실로 출발하여 IMF 위기 때인 1998년 4월 재벌구조 개혁정책에 따라 구조조정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에 X파일 사건으로 전략기획실로 바꾸었지만 그 기능과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기업 내부 정보를 핵심에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왔고, 이 점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행위가 내부고발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김용철 변호사의 2차 기자회견 후 본격적으로 ‘삼성’ 관련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11월 12일에 검찰이 수사 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 한국의 권력기관 관계자가 대거 연루되었다는 증언에 따라, 11월 14일에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1월 20일에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이용철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이라는 금품을 받았던 사실을 사진과 함께 폭로함으로써,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에 신뢰성을 더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4) 2008년 4월 ‘삼성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자, ‘삼성’은 2008년 7월 1일을 기해 해체할 것을 선언하였다.

11월 23일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어 12월 4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⁵⁾ 이 과정에서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문제로 비화됨으로써 논란 끝에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를 보면 여전히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갖는 비중과 역할이 기업 그 이상의 가치와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삼성’의 투명성과 가치를 높이는 일은 한국사회의 건강성 확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논문은 내부고발에 의해 제기된 한국 제1의 재벌인 ‘삼성’의 비리 의혹을 다룬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TV뉴스를 프레임이론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2. 이론적 논의

1) 한국사회의 부패와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

한국 현대정치에서 정치권력의 부패는 기업의 부패와 그 궤를 같이해왔다. 특히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은 정치권에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요구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 기업은 정치 자금줄로 기능하며 서로가 원하는 공모관계이자 단단한 부패 고리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한국에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라는 인식보다 오히려 반부패정책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있다. 예컨대, 1993년 ‘금융실명제’는 반부패통제정책의 핵

5) 이 법은 2007년 11월 23일 국회 통과, 12월 11일 법률안 발효, 12월 20일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내용은 삼성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 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 4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 등이다. 2008년 4월 22일 특검수사결과 경영권불법승계와 비자금 조성관리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었고, 정관계 로비 부분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심이었지만, IMF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실명제’를 경제난의 공범으로 인식하여 폐기처분된 것이 대표적이다(김병섭, 1998, 55쪽). 특히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⁶⁾를 보면, 2006년에 163개국 중 42위, 2007년에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이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평균 7.18점) 중 25위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4위를 차지한 싱가포르(9.3점), 14위 홍콩(8.3점), 34위 대만(5.7점)에도 못한 성적표다(정혜진, 2007.9.27).

사회의 부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부고발’⁷⁾이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노동자 또는 소속원이 일정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그 불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최정학, 2003). 한국에는 아직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없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처음 내부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를 규정했지만, 이 법은 보호대상을 부패행위 신고자에 한한다. 내부고발은 세 가지 요건을 갖는데, 첫째, 조직 내부의 사람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어떤 법적·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둘째, 그러한 사실을 조직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한다. 셋째, 조직 내의 권위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외부폭로는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야 한다(Hunt, 1998, p.525). 내부고발은 광범위한 조직 내의 갈등구조를 반영하는데,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조직 통제와 이에 저항하여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많은 조직사회에 내재해 있다. 즉 내부고발은 특이한 성격을 가진 자가 돌출적 행동을 벌이는 문제이기보다는 부패한 조직의 광범위한 조직문화에 대한

6) 국제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세계 각국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는 1996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정보에 대해 각국의 현지 기업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청렴한 국가부터 10점 만점으로 지수화하고 있다.

7) ‘양심선언’과 ‘내부고발’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전자가 ‘감추어진 비리나 부정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는 넓은 의미라면, 후자는 ‘조직구성원이 내부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것’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저널리즘의 조어이자 사전적 의미와 가장 근접한 ‘내부고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상징으로 볼 수 있다(신광식, 2003).

현대 한국 사회는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했고, 이 과정에 정치적 탄압에 대항하거나 경제적 부패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1990년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실태 사실을 증언한 ‘이문옥’ 감사관, 1992년 군부재자투표관련 부정투표를 고발한 ‘이지문’, 같은 해 ‘한준수’ 연기군수의 관권·금권선거 고발, 1996년 효산콘도 특혜 사업 관련 감사원 공무원 ‘현준희’의 고발, 2002년 국회의원 ‘김근태’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고백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는 부정과 비리, 본인이 입은 피해조차도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좋지 않은 행위로 여기는 풍토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고발자는 조직의 인화를 해치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의리 없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이지문, 2003). 더구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은 유교적 전통이나 집단주의 같은 또 다른 이유에서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예컨대 한국에서 1994년 내부고발자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도 처음에는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였으나, 표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공익제보’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박홍식, 2003, 146쪽). 이렇게 내부고발자들은 개인적 용기로 거대조직과 권력에 맞섬으로써 민주화의 진전과 기업과 정치권력이 건강해지는 데 밑거름이 되었지만, 당사자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왔다(제정남, 2007). 이런 점에서 한 사회가 내부고발자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의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 보호의 성패에 달려 있다(박홍식, 2003).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가장 먼저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와 그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를 시작했다. 1989년에 정부기관 내의 고발자 보호입법으로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을 제정하였고, 이어 일반적인 경우의 보호법으로는 2002년 미국 엔론(Enron)·월드콤(Worldcom)이 파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이 있다. 이 법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점을 제보하

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안인데, 제보를 이유로 보복을 받을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내부고발자들을 ‘직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용감하고 정당하게 해낸 사람들’로서, 2003년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3명의 여성 내부고발자를 선정했고, 이들의 보호에 관한 마지막 단계인 사회의 부정적 인식, 즉 이미지 바꾸기를 시도하였다(박홍식, 2003, 143~144쪽). 이렇게 내부고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용기 있는 행위이며,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의식의 표현이자 권위적인 억압에의 저항이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전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기 전에 이를 폭로함으로써 예방 내지 치료효과를 갖고, 조직의 윤리차원을 넘어서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최정학, 2003). 현재까지 국내의 언론학 분야에서 내부고발 보도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박홍식, 2003; 최정학, 2003)나 공적영역의 부패와 내부고발 등을 다룬 연구(윤태범, 1998) 등이 있다.

2) 사회적 갈등보도와 뉴스 프레임 연구 경향

매체의 보도는 사회 내에 발생한 사건이나 사안들 가운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 ‘뉴스’이다(백선기, 2004, 279쪽). 텔레비전의 뉴스는 사실상 뉴스 프레임을 통해 현실의 특수한 측면만을 차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특정사안의 다양한 요소들 중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것은 체계적으로 무시한다(정재철, 2001, 261쪽). 프레임 연구는 무엇보다도 주로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데,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한 언론의 정치적 의미구성을 탐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이준웅, 2000).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 텍스트가 뉴스 제작자와 뉴스조직의 일상화된 규범에 따라서 현실을 구성하는 이야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뉴스다운 이야기를 “선택하고, 가공하고 편집”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로서 제시한다는 것이다(이준웅, 2000, 95쪽에서 재인용). 또한 기틀린(Gitlin)은 언론보도가

‘프레이밍 장치(framing devices)’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배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패턴이며, 이 패턴에 따라 상징 조작자가 일상적으로 언어적 또는 영상적 담론을 조직한다”고 정의했다(1980, p.7). 뉴스의 프레임, 혹은 ‘응집된 상징’은 ‘교묘한 은유, 캐치프레이즈나 다른 형태의 상징적 고안물을 사용하여 그것을 전체로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Gamson & Modigliani, 1987). 이렇게 뉴스가 생산·전달되어,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뉴스의 담론화라 하고, 보도뉴스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의미의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레임 분석방법은 아직 일관된 틀이 형성되고 있지 않으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분석근거들이 도입되어 프레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시도돼 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측정방법을 차용하여 분석했다. 첫째, 텍스트 형식의 중요성은 아옌거와 킨더(Iyenger & Kinder, 1987)가 주장한 것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형식이 뉴스 텍스트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일화적(episodic) 프레임과 주제적(thematic)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중점을 둔 기사이고, 주제적 프레임은 ‘왜 일어났는가’에 중점을 둔다(양정혜·이현주, 2005, 393쪽에서 재인용). 둘째, 취재원은 텍스트가 특정한 의미를 억압하고 다른 의미들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Fishman, 1980). 셋째, 텍스트 내부의 의미생산에 대해 논하고 있는 맥콤과 가넴(McComb & Ghanem, 2001)은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는 방식은 사건·이슈를 설명하는 상징들(메타포와 같은 수사학적 사례들 또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등)이나, 뉴스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찾아내는 데 있다고 한다. 이중에서도 프레임 분석은 개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핵심적 주제(central themes)를 찾기에 주력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한다.

국내의 프레임분석 연구는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창출과 변형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연구로서 의료분쟁 보도의 의미구성 방식을 분석한 연구(양정혜, 2001;

박경숙, 2002)는 주요 갈등주체인 의사들보다 정부에 더 많은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어, 갈등 규제자의 성격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정재철, 2001)은 전쟁보도의 전형적인 성향을 보여 미국 편향적인 보도방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의 전국과 지역 뉴스를 비교한 연구(나미수, 2004)는 지상과 방송의 전국 및 지역 뉴스를 분석하여 핵폐기장 유치 이슈가 국가 정책적 이슈라기보다는 지역 내 집단 간 분쟁으로 규정되었음을 보여줬다.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보도와 관련하여 중앙지와 지역지를 비교한 연구(원만해·채백, 2007)는 신문사마다 자사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프레임을 상이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의미 창출과 변형과정을 다룬 연구들로, 매매춘 관련 TV뉴스의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김선남, 2002)는 TV보도가 심층적이지 않고 보수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기존 체제 강화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TV뉴스에서 젠더 질서에 대한 연구(양정혜·이현주, 2005)는 성매매 여성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생계위협 프레임이 가부장적 젠더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한다. 연예인 가정폭력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 보도의 틀 짓기 연구(이경숙, 2006)는 언론 보도가 단순 관찰자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정의철·이창호, 2007)은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다룰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뉴스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원자력 관련 신문보도에 대해 프레임 유형화를 통해 분석한 연구(김원용·이동훈, 2005)와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에 대한 국내 신문과 미국 신문의 보도 프레임 변화를 살핀 연구(이완수·심재웅·심재철, 2008)는 분석 프레임들을 현상적 기술에 치중하기보다는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역동적 과정을 분석했다. 이렇게 프레임 이론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적용되고 있으며, 초기의 현상적 접근에서 최근에는 역동적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연구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⁸⁾ 이

8) 한국학술정보 검색시스템(KISS)의 상세검색을 활용하여 검색어는 ‘프레임’, 검색분야는 ‘사회과학’ 중에서 ‘신문방송’을 검색한 결과, 1995년 1건, 1999년 1건, 2001년

연구는 ‘삼성’의 내부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 관련 TV뉴스가 사회적 갈등을 다룬 보도로 보고, 어떤 특수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축소·왜곡함으로써 틀 짓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내부고발 관련 TV뉴스의 형식적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TV뉴스는 내부고발 관련 보도를 어떠한 뉴스 프레임으로 의미화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3 매체별/시기별로 어떠한 프레임의 차별성과 변화가 드러나는가?

아직 한국사회의 투명성은 그리 높지 않고, 부패구조가 어느 정도 만연하기에, 부패와 내부고발은 필연적 인과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여건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비난과 사회구조적 모순을 폭로한 의인이라는 인식이 상존하므로 사회적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길이 매우 험난하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내부고발에 대해 TV방송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 의미화의 방식과, 이를 통해 내부고발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3.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시기의 구분

본 연구는 ‘삼성’의 전직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보도한 KBS-TV(9시 뉴스)와 SBS-TV(8시

5건, 2002년 4건, 2004년 9건, 2005년 6건, 2006년 11건, 2007년 10건 등 모두 47건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의 저녁 종합뉴스⁹⁾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TV뉴스를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한국언론재단(2007)의 ‘국민의 뉴스소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3%’가 TV뉴스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 중에도 주로 지상파 TV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지상파 방송 TV뉴스는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공통적인 요소가 더 많이 발견된다. 특히 SBS의 경우에는 KBS와 MBC의 주요 중심 주제를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김우룡, 2002, 231쪽). 이 연구는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이 관련되어 있기에 자본 친화적인 요소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상파 방송 중에서 대표적인 공영방송(KBS)과 상업방송(SBS)을 분석대상으로 보도방식의 차별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TV뉴스의 보도문은 구두 언어가 주가 되며 화면의 도움을 받는 성격을 띠고 가장 규범적이고 정확도가 요구되는 언어이다(장소원, 2003, 342쪽).

분석기간은 ‘삼성’ 비리의혹 관련 1차 기자회견일인 2007년 10월 29일부터 2007년 12월 4일 ‘삼성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기까지로 한다. 왜냐하면 이 법의 입법과정 중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행사가 시사되는 등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법이 발효되어, 12월 20일 특별검사가 임명됨으로써 사법적 절차를 개시하여 법제도적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므로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표 1>과 같이 ‘삼성특검법’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담론이 존재했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통시적 분석을 위해 3시기로 구분하였다. ‘1시기’는 1차 회견부터 2차 회견 전날까지(2007.10.29~11.4)인 7일간으로, ‘2시기’는 2차 회견부터 3차 회견 전날까지(2007.11.5~11.25) 21일간으로, ‘3시기’는 3차 회견부터 삼성특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공포된 날까지(2007.11.26~12.4)인 9일간으로 하였다. 시기구분을 통해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은 동태적 프레임 연구의 장점인 프레임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사건의 현저성이 어떻게 바뀌는가와 역동적인 변화과정(김원용·이동훈, 2005; Muschert & Carr, 2006; 원만해·채백, 2007; 이완수·심재웅·심재

9) 아옌거와 킨더(Lyenger & Kinder, 1987)에 따르면 TV저녁뉴스가 시청자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표 1> 내부고발 관련 시기별 주요사건 및 보도건수

구분	1시기	2시기	3시기
기간	2007.10.29~11.4[7일간]	2007.11.5~11.25[21일간]	2007.11.26~12.4[9일간]
KBS	6	25	24
SBS	6	27	28
계	12	52	52

철, 2008)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분석을 위해 KBS-TV의 <뉴스9>와 SBS-TV의 <8시뉴스> 홈페이지에서 지난 뉴스 다시보기를 검색하였고, 검색어는 ‘김용철’, 검색기간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표 1>과 같이 KBS-TV는 55건, SBS-TV는 61건 등 총 116건으로 나타났다.

2) 뉴스 프레임의 구성 및 분석방법

이 논문은 내부고발에 대한 매체 보도방식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어떻게 틀 짓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레임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아엔거와 킨더(Iyenger & Kinder, 1987)가 주장한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을 통해 어떠한 조건과 전개형태를 통해 뉴스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은 주로 특정한 사건 및 사고의 맥락 안에 위치하는 기사, 특정사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사례보도의 형식을 취하는 기사 등이고, 주제적 프레임은 사회적 의미나 함의를 지니는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거나 단일성 사건이나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적 추세를 다루는 기사, 공공의 이슈를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맥락에서 다루는 기사를 말한다. 둘째, 취재원은 보도 텍스트가 특정한 의미를 억압하고 다른 의미들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판단하여 부문별 표출빈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프레임을 중요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담론의 틀 또는 분류체계로

<표 2> 내부고발 보도의 프레임 구성

프레임 종류	핵심내용
사건공시 프레임	· 사건의 고발자 혹은 피고발인에 대한 단순 보도를 통해 사건발생을 알림 · 사건을 상세히 묘사하여 내부고발의 내용을 알림
갈등적 뉴스 프레임	·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포함)의 단순 갈등 · 기타 피고발인 측과 김용철 변호사의 갈등
진상규명 촉구 프레임	· 관련 사안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관점에서 묘사하며 재벌의 불법적 행태 비판 ·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
양심고백적 프레임	· 사건을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에 따른 도덕적 차원에서 묘사 · 폭로를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묘사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	· 사건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인해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묘사(ex, 거짓 폭로, 신뢰에 문제 있는 행위 등으로 묘사) · 사건이 기업행위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묘사

보고(Entman, 1993), 각각의 보도 텍스트를 하나의 이야기구조이자 분석단위로 간주하여 헤드라인과 리드, 본문을 대상으로, 키워드와 은유 및 제목을 축약하고, 핵심주제를 추출하여 유사한 내용별로 분류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연구자가 보도뉴스를 분류하고 읽어가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이 양심의 문제이자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보도와, 일종의 ‘배신’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봉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드러나는 기사들이 있었다. 여기에 미국의 엔론사건을 다룬 워렌타(Walenta, 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추출한 ‘양심고백적 프레임’은 내부고발에 대해 사회정의의 실현 또는 개인적 양심의 발로로 보는 시각으로서 사회적 투명성 확보에 대한 내부고발의 순기능에 대한 매체의 관점을 드러낸다.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은 내부고발에 대한 역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드러내는 프레임이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사들과, 사건과 관련된 주제들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보도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여기에 기존

연구결과들인 엔트만(Entman, 1991), 프라이스 외(Price et al., 1997), 벨칸버그와 동료들(Valkenburg, Semetko & de Vreese, 1999; Semetko & Valkenburg, 2000)의 연구 등을 참조하여, 내부고발 성격의 사회 갈등적 요소에 주목하고 기존 연구 중에서 사회 갈등과 관련된 분석에 이용된 사건공시 프레임, 갈등적 뉴스 프레임, 진실규명추구 프레임(양정혜 2001; 김선남 2002; 박경숙, 2002; 이경숙, 2006)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사건공시 프레임’은 사건의 단순 보도에 그친 것으로서 방송 매체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수동적으로 접근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사건공시 프레임에서는 내부고발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한다거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갈등적 뉴스 프레임’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사건을 둘러싼 주체들 간의 갈등으로 보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 ‘진실규명추구 프레임’은 여러 사회갈등을 다룬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으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적극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두 5개의 뉴스 프레임을 찾아내 <표 2>와 같이 구성하였고,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투명성 차원의 양심고백적 프레임과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이 충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송보도 뉴스가 만들어낸 프레임들은 상징적 공론의 장에서 어떤 가치가 우위를 점하여 여론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각각의 프레임에 대한 분석이 의미가 있다.

분석유목에 대한 코딩은 연구자와 1명의 대학원생이 코딩지침을 숙지한 후 실시하였다. 코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개별 기사를 방송별로 10건씩 무작위로 표집하여 분석자 2인이 각자 코딩하고, 코더간의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프레임의 형식에서는 .90, 핵심내용에 따른 프레임 종류에서는 .82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더간 신뢰도는 상호일치도(percent agreement)에 의한 검증을 사용하였다.¹⁰⁾ 본 논문은 <연구문제 1>에서 제기한 텍스트의 프레임

10) 보도기사를 대상으로 전개형태(형식적 프레임), 취재원, 핵심내용에 따른 프레임 종류 등의 항목에 따라 코딩작업을 거쳐 코더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홀스티(Holsti, 1969)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내용분석 코딩지는 지면관계로 생략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연구자에게 문의 바람.

형식과 갈등구조, 취재원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1)’에서 논의하였고,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어떠한 뉴스 프레임에 의해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매체별/시기별로 결과를 도출하여 ‘연구결과 2)’에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1) 내부고발자 보도의 프레임 형식과 취재원 분석

방송 보도뉴스의 프레임 형식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2개 방송매체 모두 일화적 프레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화적 프레임은 전체 116건의 기사 중에서 109건(94%)에 해당되고, 주제적 프레임은 6건(6%)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분석한 결과 KBS는 일화적 프레임이 55건 중에서 52건(95%), SBS도 61건 중에서 57건(93%)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매체별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KBS와 SBS의 내부고발 관련 보도는 주로 관련 사건 및 사고의 맥락 안에 위치하는 방식의 사례보도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방송 뉴스가 구성적으로는 단순하며 인터뷰와 관련 자료가 적고 심층성이 떨어지며 주제적으로는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윤호진, 2004; 이준웅·황유리, 2004)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아옌거(Iyenger, 1992)는 일화적 프레임이 절대적으로 다수 표출되는 것은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잘못된 대상에게 전가함으로써 사실상 민주주의적 규범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방송매체가 사회적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 개인의 경험이나 일화 중심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 보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보도뉴스에는 <표 4>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취재원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116건의 기사에 183명이 나타나, 1회당 평균 1.4명의 취재원이 표출된다. 매체별로 비교하면, KBS는 전체 92명의 취재원 중에서 ‘삼성(34건, 37%)–김용철 변호사(30건, 33%)–김철(7, 8%)–진보시민단체(6건, 7%)–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5건, 5%)’의 순이고, SBS는 전체 91명의 취재원 가운데 ‘김용철 변호사(26건, 29%)–삼성(25건, 27%)–검찰(8건, 9%)–진보시민단체(8건, 9%)–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6건, 7%)’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SBS는 정치권(주로 국회의원)을 8건이나 인용한 반면, KBS는 한 번도 없어 대조된다.

<표 3> 프레임 형식에 따른 보도뉴스의 분류¹¹⁾

구분	보도건수	주제적	일화적	주제중심+사례, 일화 포함
KBS	55	2	52	1
SBS	61	4	57	
계	116	6	109	1

이들 취재원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뉴스에 드러나는 갈등구조를 보면, 내부고발 측에는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진보시민단체가 위치하고, 피고발인 측에는 삼성과 관련법인, 검찰, 금융감독원 등이 있다. 이런 기준에서 <표 4>를 보면 전체 183명의 취재원 중에서 내부고발 측이 81명이고, 피고발인 측이 79명으로 나타난다. 이 갈등구조는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이 한국 사회의 주요 권력층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내부고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측은 종교적 양심집단이나 진보적 시민단체이고,¹²⁾ 그 대척점에 자본가와 권력기관이 위치해 있는

- 11) 보도뉴스 텍스트를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헤드라인, 앵커의 리드멘트, 기자의 리포트로 구성된 전형적인 ‘TV뉴스’와 앵커의 단순멘트로 구성된 ‘단신’, ‘칼럼’으로 나뉜다. KBS는 전형적인 TV뉴스가 53건, 단신이 2건이고, SBS는 TV뉴스가 59건, 칼럼이 2건으로 나타나 ‘삼성’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현재까지 주로 ‘삼성’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김상조 교수, 심상정·노회찬 전 의원, MBC 이상호 기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용철 변호사 등으로, 이들의 노력에 의해 ‘삼성’이 거둬나간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손문상, 2008).

<표 4> 뉴스에 나타난 취재원

구분	기사 건수	취재원													
		김용철 변호사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삼 성	검 찰	정치권			법 조 계	진보 시민 단체	보수 시민 단체	금 감 원	일반 시민	기 타	계
						여권	보수 야권	진보 야권							
KBS	55	30	5	34	7				2	6		3		5	92
SBS	61	26	6	25	8	3	3	2		8		2		8	91
계	116	56	11	59	15	3	3	2	2	14		5		13	183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부패가 단순히 해당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과 관계됨으로써 사회·정치·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핵심내용에 따른 뉴스 프레임의 주제중심별·시기별 분석

연구방법에서 구성한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매체별·시기별로 보도뉴스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코딩지에 2개까지 중복코딩한 결과, <표 5>와 같이 KBS는 83개, SBS는 95개의 프레임이 도출되었다. 프레임별 표출 건수를 보면 KBS는 ‘사건공시(37건)-진상규명추구(16건)-갈등적 뉴스(12건)-양심고백적(12건)-사회혼란 야기(6건)’ 프레임 순서이고, SBS는 ‘사건공시(38건)-갈등적 뉴스(23건)-진상규명추구(18건)-사회혼란 야기(13건)-양심고백적(3건)’ 프레임 순서로 나타나 매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KBS는 SBS에 비해 진상규명추구·양심고백적 프레임을 더 사용하고 있고, SBS는 상대적으로 양심고백적 프레임보다는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으로 더 많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기별 표출빈도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하면 KBS는 프레임 종류에 따라 시기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을 보면 전반적으로 각 프레임별로 1시기는 빈도수가 별로 없는 반면, 2시기와 3시기는 빈도수

<표 5> 방송사에 따른 프레임 종류 표출빈도

프레임 방송사	사건공시		갈등적 뉴스		진상규명 축구		양심고백적		사회혼란 야기		합계		통계 검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KBS	37	44.6%	12	14.5%	16	19.3%	12	14.5%	6	7.2%	83	100.0%	x ² = 10.807, df=4, p<.05
SBS	38	40.0%	23	24.2%	18	18.9%	3	3.2%	13	13.7%	95	100.0%	
합계	75	42.1%	35	19.7%	34	19.1%	15	8.4%	19	10.7%	178	100.0%	

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SBS는 사건공시, 갈등적 뉴스, 진상규명 축구 등의 프레임은 2시기와 3시기에서 높은 증가를 보이는 반면, 양심고백적·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은 주로 2시기에서 다수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3시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6> 프레임 종류에 따른 시기별 표출빈도

구분	프레임종류	시기별 표출						합계		통계 검증
		1시기		2시기		3시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KBS	사건공시	5	13.5%	15	40.5%	17	45.9%	37	100.0%	x ² = 11.234, df=8, p>.05
	갈등적 뉴스	0	0.0%	5	41.7%	7	58.3%	12	100.0%	
	진상규명 축구	2	12.5%	7	43.8%	7	43.8%	16	100.0%	
	양심고백적	0	0.0%	8	66.7%	4	33.3%	12	100.0%	
	사회혼란 야기	2	33.3%	4	66.7%	0	0.0%	6	100.0%	
	전체	9	10.8%	39	47.0%	35	42.2%	83	100.0%	
SBS	사건공시	3	7.9%	13	34.2%	22	57.9%	38	100.0%	x ² = 18.023, df=8, p<.05
	갈등적 뉴스	3	13.0%	8	34.8%	12	52.2%	23	100.0%	
	진상규명 축구	1	5.6%	9	50.0%	8	44.4%	18	100.0%	
	양심고백적	1	33.3%	2	66.7%	0	0.0%	3	100.0%	
	사회혼란 야기	2	15.4%	11	84.6%	0	0.0%	13	100.0%	
	전체	10	10.5%	43	45.3%	42	44.2%	95	100.0%	

시기별로 보면, 두 매체 모두 프레임 표출비율은 ‘2시기-3시기-1시기’의 순서를 보인다. 특히 2시기는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후의 보도 방식인데, 사건공시·갈등적 뉴스 프레임을 제외한 진상규명추구·양심고백적·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에서 최다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2시기에 양심고백적 프레임과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출된 것은 2차 기자회견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나타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전 청와대비서관이었던 이용철 변호사가 삼성비자금 ‘떡값’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담론이 급격히 활성화된 시기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양심고백적 프레임 비율이 급증한 것은 이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제기에 상당부분 신뢰성을 뒷받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³⁾ 즉 KBS와 SBS는 연이은 유사한 폭로에 의해서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다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프레임을 통한 접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사건공시 프레임

이 프레임은 사건의 내부고발자 혹은 피고발인에 대한 단순 보도를 통해 사건 발생을 알리거나 상세히 묘사하여 내부고발의 내용을 공시하는 보도뉴스를 말한다. 사건공시 프레임은 피상적 보도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락하는 경향을 보임(이경숙, 2006, 231쪽)으로써 매체가 해당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KBS는 사건공시 프레임이 전체 83건 중 37건(48%), SBS는 95건 중 38건(40%)으로 나타나, 두 방송사 모두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공영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 내부고발 문제를 단순한 사건으로 치중하여 알리는 데 급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에서와 같이 시기별로 보면, 1시기에 사건공시 프레임 표출빈도가 KBS에서는 8개 프레임 중 5개(62%), SBS는 10개 프레임 중에서 3개(30%)로 나타나

13) 양심고백적 프레임의 경우 이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2007년 11월 19일을 기준으로 KBS는 이전이 4건, 이후가 8건이고 SBS는 이전이 1건, 이후가 2건으로 나타나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KBS가 사건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2시기에 KBS는 전체 40개 프레임 중에서 15개(37%), SBS는 43개 중에서 13개(30%)로 나타났다. 3시기에는 KBS가 34개 중 17개(50%), SBS는 42개 중 22개(52%)가 사건공시 프레임으로, 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어 특검법의 도입 등 제도화 과정에 들어가자 두 매체 모두 단순 사실 보도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레임에서 내부고발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어휘들은 주로 “폭로, 주장, 의혹제기, 비자금 의혹, 가능성, 증언, 부인, 수사 착수, 돌입, 추가 공개, 정황 확인, 진상조사” 등이다. 이들 어휘는 사건의 발생과 진행상황을 단순하게 전달하지만, 폭로와 주장, 의혹 제기 등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는 용어들로 채워져 있다. 보도 사례로는 KBS의 경우에 사건공시 프레임 기사는 대부분 “김용철 변호사는 ... 주장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압수수색 ... 조사 착수”, “차명 의심 계좌 120여 개 본격 추적” 등 내부고발의 진상이 확인되지 않는 주로 가치중립적인 문장으로 사건의 발생과 진행상황에 대한 단순 나열을 하고 있다. SBS의 경우에는 “비자금 ... 주장이 제기됐다”,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이번엔 떡값 파문”, “직접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 주로 인용이나 간접적 화법에 의해 사건의 발생을 단순히 알려주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관심이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건공시 프레임은 사건의 본질이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확인 취재나 검증 없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단순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흥미 위주로 뉴스가치가 있는 개별적 사건으로 제시하면서 고발자와 피고발인의 관계, 현재의 상황 등을 TV뉴스가 선정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프레임에서는 한국의 최대 기업 ‘삼성’과 전직 내부 고위임원이 관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관심과 흥미 위주의 보도가 가능한 조건을 갖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2) 갈등적 뉴스 프레임

갈등적 뉴스 프레임은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의 직접적인 갈등이나, 삼성 측 피고발인과 내부고발 관련자 측의 갈등이 드러난 보도를 말한다. <표 6>에서 시기별로 보면, 1시기의 갈등적 뉴스 프레임 표출빈도가 KBS는 없고, SBS는 10개 프레임 중에서 3개(30%)로서 상대적으로 SBS가 이 사건을 갈등적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 또한 2시기에 KBS는 전체 39개 중에서 5개(13%), SBS는 43개 중에서 8개(19%)이고, 3시기에는 KBS가 35개 중 7개(20%), SBS는 42개 중 12개(29%)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자 갈등적 뉴스 프레임 표출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 프레임에서 내부고발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어휘들은 “진통, 폭로·반박, 주장·거짓주장, 해명, 사실무근, 일축, 강력부인, 항변” 등으로 내부고발 측과 피고발인측 간의 대결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내부고발 측에서 제기한 사안들은 ‘폭로’나 ‘주장’인 반면에, 피고발인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부인”하거나 “법적 대응”,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내부고발이 사회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사자 간의 단순대립과 갈등으로 비쳐지게 한다. 이러한 보도사례로 KBS는 “차명계좌 만들어 비자금 관리 vs 터무니없다”, “주장이 맞서다”, “주장하다·반박하다” 등으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SBS는 “공방 불가피” 하다가, “팽팽히 맞서다”, “주장하다 … 반박하다”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두 매체는 갈등적 뉴스 프레임에서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한국 최대기업 ‘삼성’과 국가의 공적 권력기관인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등이 한 축으로, 이에 대립하는 축은 김용철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세력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거대기업 ‘삼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구조로 볼 수 있고, 더구나 ‘삼성’ 측에 주요 국가권력 기관들이 연루됨으로써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와 자본지배분과 간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부패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대부분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대응을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갈등적 뉴스 프레임을 매체별로 비교하면, KBS는 총 83개의 프레임 중에서 12개(15%), SBS는 총 95개 중에서 23개(24%)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SBS가 KBS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적 뉴스 프레임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사회갈등을 다룬 기존연구들이 뉴스 보도문에서 제시된 주체들의 입장, 예컨대 의료분쟁 보도는 정부와 의료집단 간의 정통성 부여의 문제(양정혜, 2001)를 다루거나, 사회적 갈등문제를 세분하여 도출한 각각의 프레임별로 분석한 연구(박경숙, 2002; 나미수, 2004; 원만해·채백, 2007)인 데 비해 TV매체별로 갈등적 뉴스 프레임이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여기에 나타난 주체들에서 거대자본 ‘삼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구체적으로 추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진상규명추구 프레임

진상규명추구 프레임은 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규명(Entman, 1991)을 의미하는 사실규명 프레임과 유사한 프레임이다.¹⁴⁾ 이 사건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관점에서 묘사하며 재벌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프레임을 말한다. <표 6>에서 시기별로 보면, 1시기에 진실규명추구 프레임은 KBS가 9개 중 2개, SBS는 10개 중 1개로 나타난다. 특히 KBS는 1차 기자회견 후 5일이 지난 11월 3일에, SBS는 11월 4일에 진상규명추구 프레임이 나타난다. 2시기에 KBS는 39개 중 7개(18%), SBS는 43개 중 9개(21%)로 나타났고, 3시기에는 KBS가 35개 중 7개(20%), SBS는 42개 중 8개(19%) 등으로 진상규명추구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공적 제도화, 즉 ‘삼성 특검법’의 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레임에서 내부고발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어휘들은 “불가피, 목소리

14) 특히 사실규명 프레임보다 진실규명추구 프레임이라 명명한 것은 이 사건의 당사자 간 주장이 매우 대칭적이고, 내부고발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진실’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높아지다, 도입 촉구, 신속한 수사요구, 의혹의 시선을 키우다”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검찰이 수사 주체인 데 반해, 제기된 의혹에는 검찰고위직 상당수가 포함되어 수사 진척이 더디지는 것에 대해 내부고발자 측의 반발이 반영된 어휘들이다. 특히 이 사건에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주로 수사촉구 및 고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며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 프레임이 반영된 보도 사례로는 KBS의 경우에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진실을 가려야 한다…,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삼성의 공식사과와 특검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 등으로 나타난다. SBS는 “석연찮은 해명”, “의혹의 시선을 키우고”, “수사를 특별검사에 맡기라 촉구”, “명백한 물증, 엄정한 수사를 촉구”,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 “썩은 관행을 제대로 도려내지 않고 봉합한다면” 등으로 나타난다. 두 매체 모두 사건의 진상규명 방식을 피고발인 측의 해명보다는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연이은 폭로에서 다수의 고위 검찰관계자가 관련되었음이 드러나자 검찰이 수사주체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의 변화는 실제 특검법이 조속히 도입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체적으로 진상규명촉구 프레임을 매체별로 비교하면, KBS는 전체 83개의 프레임 중에서 16개(19%)가 해당되고, SBS는 전체 95개 프레임 중에서 18개(19%)로 나타난다. 이는 진실규명촉구 프레임의 특성상, 어느 일방의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다는 언론의 공적 기능과 부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두 매체가 별다른 차별성 없이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4) 양심고백적 프레임

양심고백적 프레임은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행위를 용기 있는 양심고백으로 인식하면서 도덕적 차원에서의 정당성을 묘사하거나, 사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정의의 실현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보도 양식을 말한다. <표 6>에서 시기별로 보면, 1시기에 양심고백적 프레임 표출이 KBS에는 없고,

SBS는 11월 3일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인 KBS가 김용철 변호사의 2차 기자회견까지 양심고백적 프레임 보도가 없었던 반면, 상업방송인 SBS가 양심고백적 프레임으로 보도한 것은 거대자본 ‘삼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시기에 KBS는 전체 39개 중 8개(21%), SBS는 43개 중 2개(5%)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록 KBS가 사건 발생 초기인 1시기에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이 없으나, 2차 기자회견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추가 폭로로 더욱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자, 회견 내용의 진실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도 프레임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BS는 1시기에 처음으로 양심고백적 프레임이 나타난 후, 오히려 2차 기자회견으로 담론화가 더욱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3시기에는 KBS가 35개 중 4개(11%)가 양심고백적 프레임으로 나타나고, SBS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내부고발을 양심고백적 프레임에 의한 용기 있는 행위로 보는 데는 두 방송매체가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레임에서 내부고발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어휘들은 “양심선언, 고백서, 신빙성 높다, 사실로 입증, 실제로 확인” 등으로 나타난다. 이 어휘들은 사건의 본질이 삼성의 내부 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의 사회적 성격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양심 문제로 보이게 한다. 특히 양심고백적 어휘들은 의혹제기 초기에는 ‘주장’ 또는 ‘폭로’라는 어휘로 사용되다가,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이용철 변호사의 증언과 또 다른 삼성관련 의혹 제기가 나오자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보도사례로 KBS는 “사실로 입증된 만큼 … 고백서의 내용이 과장을 불러올 것”, “폭로이유—공적 기관이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에 휘둘러선 안 된다”, “폭로 내용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털어냈다”, “김용철 변호사 주장 신빙성 높다”, “김용철 변호사의 말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확인해줬습니다”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보도사례들은 점차 사건이 진행되면서 다른 증언이나 물증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자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신뢰를 드러내지만, 그 내부고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나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도라

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증언이 사실이나 아니냐를 주로 문제 삼는 고발자 중심의 프레임을 드러낸다. 특히 SBS는 11월 3일 “‘양심선언’을 하였다”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의 보도 이후 양심고백적 프레임 보도뉴스가 나타나지 않다가, 11월 19일 이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있자 바로 2개의 양심고백적 프레임 보도뉴스가 나타났다.

매체별로 비교하면, KBS는 83개의 프레임 중에서 12개(14%), SBS는 95개 프레임 중에서 3개(3%)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공영방송인 KBS와 상업방송인 SBS간의 상대적 차별성이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아 어느 일방의 의견에 따라 단정적으로 보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프레임에 의한 보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두 방송 모두, 분석기간 동안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명백히 내부고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폭로, 주장으로만 표현함으로써 내부고발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무심한 보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5)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은 이번 사건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인해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삼성’의 대외신인도 추락과 같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한국 사회에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프레임을 말한다. 예컨대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거짓 폭로’라든가, 자신이 속했던 조직을 배반하여 신뢰에 문제가 있는 행위 등으로 묘사하는 프레임을 말한다. <표 6>에서 시기별로 보면, 1시기에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 표출이 KBS와 SBS에 각각 2개씩 나타났다. 같은 시기에 양심고백적 프레임이 KBS에는 없고 SBS에 1회 표출된 것과 비교하면, 두 방송매체가 이 사건의 초기 상황을 사회혼란의 입장에서 강하게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시기로 들어와서 KBS는 전체 39개 중 4개(10%), SBS는 43개 중 11개(25%)로 나타났다. 특히 KBS는 2시기에 양심고백적 프레임 8건(21%)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표출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SBS는 1시기의 2회에서 2시기에는 11회로 대폭 늘어났으며, 양심 고백적 프레임이 2건(5%)임에 비해 11건(25%)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사건을 상대적으로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3시기에는 두 매체에서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기는 이미 ‘삼성특검법’의 입법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여서, 내부고발에 대해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보다는 사건의 공시와 당사자들 간의 폭로와 반박이 지속되는 뉴스가 전반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에서 내부고발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어휘들은 “파문, 삼성그룹의 전직 간부, 얼마만큼 신빙성 있는 근거, 물증과 수사협조가 관건, 사실을 교묘히 조작,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 허위사실 유포, 큰 파문, 의혹만 부풀리는, 소모전, 신뢰성에 문제” 등의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어휘는 내부고발을 일종의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진 고자질이나 조직에 대한 배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인의 확산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보도사례로 KBS는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삼성그룹의 전직 간부”, “얼마만큼 신빙성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는가”, “비자금 파문은 갈수록 확대”, “사실을 교묘히 조작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고 있다고 주장”, “삼성계열사들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용철 씨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 등으로 나타난다. SBS는 “내부문건을 공개해 큰 파문 예상”, “계속되는 폭로가 다시 한 번 큰 소용돌이를 예고”, “의혹만 부풀리는”, “혼란이 가중되는”, “사회적인 소모전을 벌이지 말고”, “주장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분쟁에 경영의 역량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게 돼”, “거의 터무니없는 음해일 뿐”,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 왜 기업범죄 수사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 등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법무팀장이라는 고위직 임원 출신이라는 것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사실을 강조, 개인적 차원의 ‘배신’을 부각시켜 자극적인 화제로 묘사하거나, 공연히 문제를 일으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방식으로 의미화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의 사회적 순기능, 즉 기업의 투명성 제고로 인한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 반하는 의미를 유포시키게 된다. 이러한 프레임이야말로 내부고발행위를 개인적 차원으로 돌림으로써, 사회구조적 부패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보도사례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매체별로 비교하면, KBS는 전체 83개의 프레임 중에서 6건(7%), SBS는 전체 95개 프레임 중에서 13건(14%)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SBS가 KBS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이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SBS의 소유구조 성격과의 상호 관련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삼성’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고발로 보고, KBS와 SBS의 텔레비전 뉴스를 프레임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에서는 ‘일화적’ 보도가 두 매체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취재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김용철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내부고발 측과 삼성을 중심으로 검찰, 금융기관 등의 국가 권력기관이 대립하는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보도 내용에서 드러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한 결과 모두 5개의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었고,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사건공시 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양심고백적 프레임과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이 대립적 프레임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체별로 차별성이 드러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KBS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선호하며, SBS는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선호하고 있음이 드러나 매체 소유구조에 따른 상호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두 매체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 등에는 매우 인색하며, 고발자 중심의 흥미적 요소를 부각시킨 보도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갈등적 뉴스 프레임에서는 TV매체별

로 차별화되어 드러나는 것과 보도에 나타난 주체들로 인해 거대자본 ‘삼성’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더구나 프레임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양심고백적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결과, 2007년 11월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삼성’ 관련 폭로가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제기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두 매체 모두 진실 규명을 위한 심층 보도보다는 폭로에 기댄 수동적인 보도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사회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보도방식은 내부고발을 여전히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행위로 인식시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내부고발의 순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 사회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회 및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김병섭, 1998, 60쪽). 위험사회의 지표로 흔히 각종 사고, 환경오염, 식품 위생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대부분 조직과 제도의 틀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사회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경계하고 견제하는 데는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성장 위주의 한국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개선하기 위한 반부패 노력은 준법 프로그램의 준수뿐 아니라, 전체적인 관행과 인식의 확산 차원에서 행하는 상징조작(symbolic manipulation)도 함께 필요하다(박홍식, 1999, 131쪽). 더구나 한국의 대표이자 세계적 기업으로서 ‘삼성’의 존재는 소중하다. 그러나 삼성의 명성은 마케팅과 경영리더십 같은 경제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그 성과는 규범적, 실용적 차원의 정당성과 관련될 수 있으나, 기업의 신뢰나 지지와 관련된 정서적인 부분을 움직이지는 못한다(강문정·차희원, 2007, 501쪽). 무엇보다도 사회와 기업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거나 청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고 여기에서 언론 매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첫째, KBS와 SBS의 내부고발 보도에서 TV보도에 전형적인 나열식의 피상적 보도로 사회구조적인 심층 분석에

이르지 못해, 내부고발의 사회구조적 문제보다는 내부고발자 중심의 일탈적 보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사회적 과장이 크고 공익적 목표가 뚜렷한 사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들의 뉴스보도에 대한 보도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무관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책임한 폭로는 경계해야 하지만 사회적 투명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변화에 지상파 방송들의 보도태도가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방송사의 입장에 따라 내부고발을 보는 관점이 부분적으로 차별화되어 나타남으로써,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주의가 촉구된다. 보도방식에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공공재인 지상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상업방송의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적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시각에서 진지한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KBS와 SBS만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언론매체들의 내부고발 보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 초기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최근까지 지속된 ‘내부고발’ 사건을 보다 풍부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여타의 언론매체로 분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분석대상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최근까지 이어진 ‘삼성’ 관련 보도의 추이를 살피기 위해 분석기간을 확장하여 텔레비전 내부고발 뉴스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내부고발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방식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발전된 논의를 기대한다.

Ⅰ 참고문헌

강문정·차희원 (2007). 기업명성(Corporate Reputation)과 공중의 이슈 프레임이 기업 정당성 인식(Perceived Corporate Legitimacy)에 미치는 영향: 삼성의

- 경영권 승계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479~507.
- 강준만 (2005). 『이건희 시대』.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김병섭 (1998). 부패와 위험사회. 『계간 사상』, 가을호, 46~68.
- 김우룡 (2002). 『텔레비전 뉴스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운의 (2001). 삼성그룹 내부고발자 노민수 씨의 기묘한 사연. 『월간 말』, 5월호, 172~175.
- 김원용·이동훈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197.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1~76.
- 김승범 (2008.1.26). 기업비리 고발한 임직원들 신세, 결국엔..., 『조선일보』.
- 나미수 (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MBC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6호, 1~33.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프레임 분석: 의약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 박홍식 (1999). 부패지향적 기업문화 해소방안. 『한국행정학회 1999년도 특별세미나 논문집』, 117~133.
- _____ (2003).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현실-보호법제정을 요구한다. 『사회비평』, 35권, 143~153.
- 백병규 (2008.1.11), 언론자유 외치던 언론사—신문협회는 불구경만 할 건가, 『오마이뉴스』. 백선기 (2004). 『한국 언론보도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선기 (2004). 『한국 언론보도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손문상 (2008).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삼성은 무엇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가』. 서울: 프레시안북.
- 송백석 (2007). ‘삼성공화국’ 현상과 자본주의 국가의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1-4호, 57~79.
- 송원근 (2005). 삼성의 경제력과 성장의 그늘. 『역사비평』, 통권72호, 35~67.
- 신광식 (2003). 내부고발자의 고통과 건강문제. 『사회비평』, 35권, 171~188.
- 원만해·채 백 (2007).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

- 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199~228.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양정혜·이현주 (2005). 텔레비전 뉴스와 젠더질서: 성매매방지법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9권 2호, 378~418.
- 윤태범 (1998). 위기의 관료사회, 구조적 부패와 개혁방안. 『당대비평』, 통권4호, 240~275.
- 윤호진 (2004). 『한국, 영국, 일본 공영방송 저녁종합뉴스 비교분석』.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이경숙 (2006). 가정폭력 보도의 틀 짓기 분석: 연예인 가정폭력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1호, 211~248.
- 이완수·심재웅·심재철 (2008). 미디어 현저성과 프레임 변화의 역동적 과정: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386~412.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사회』, 통권 29호, 85~153.
- 이준웅·황유리 (2004). 한국형 방송 뉴스 도식의 발견: 뉴스의 내용적이며 구성적 특성과 뉴스제작 시스템.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232~292.
- 이지문 (2003). 한국의 내부고발자 그들은 누구인가?. 『사회비평』, 35권, 154~170.
- 장소원 (2003). TV 뉴스 보도문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15. 341~362.
- 정의철·이창호 (2007).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하인스 워드의 성공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84~110.
- 정재철 (2001). 미국 대 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저녁 9시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3권, 257~278.
- 정혜진 (2007.9.27). 한국 부패지수 2년간 제자리...180개국 중 43위. 『동아일보』.
- 제정남 (2007). '사회변화의 밑거름 됐지만 고통의 나날 보내' — 세상을 흔든 양심 선언들, 지학순 주교부터 김용철 변호사까지. <http://www.voiceofpeople.org/A00000162134.html>
- 조돈문·이병천·송원근 (2008).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 서울: 후마니타스.
- 최정학 (2003).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법적 문제점. 『형사정책』, 15권 1호, 315~338.

한국언론재단 (2007). 『2006 국민의 뉴스소비』. 서울: 한국언론재단.

홍덕률 (1998). IMF 부른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한국자본주의와 재벌. 『역사비평』, 통권 43호, 91~108.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6~27.
- _____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Fishman, M (1980).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7). The changing culture of affirmative action. *Research in Political Sociology*, vol.3. 137~177.
- Gitlin, Todd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sti, Oli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Boston, MA: Addison-Wesley publishing.
- Hunt, Geoffrey (1998). “Whistle-blowing”, in *the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 Iyenger, S. (1992).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er, S. & Kinder, D. R. (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omb, M. E. & Ghanem, S. I. (2001). The Convergence of Agenda Setting and Framing. In S. D. Reese, O. H. Gandy & A. E.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pp.67~81). Mahwah, NJ: Lawrence Erlbaum.
- Muschert, G. W. & Carr, D. (2006). Media salience and frame changing across events: Coverage of nine school shootings, 1997~2001.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3(4). 747~766.
- Price, V., Tewksbury, D. & Powers, E. (1997).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 *Communication Research*, 24(5), 481~506.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of construction of reality*. NY: Free Press.
- Valkenburg, P. M., Semetko, H. A. & de Vresse, C. H.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50~569.
- Walenta, J. (2006). Corporate Bodies of Desire: An investigation into the 'Woman of Enron'. *Gender, Place and Culture*, 13(4), 437~453.
- <http://find.kbs.co.kr/wnsearch.jsp>
- http://news.sbs.co.kr/review/indexes/8news_index.jsp
- <http://www.adic.co.kr/stat/index.do>

(투고일자: 2008.05.26, 수정일자: 2008.07.10, 게재확정일자: 2008.07.21)

Analysis on TV News Frame on Whistle-Blower

Focused on News Coverages on 'Kim Yong Chul'

Claiming Samsung Group's Slush Fund

Nam-Il Kim

Ph. D. in Communication Studies

(Dep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Th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regards former Samsung lawyer Kim Yong-Chul's action of claiming Samsung Group's slush fund as typical Whistle-Blowing from inside. News frames in KBS, SBS TV were examin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n formal feature, 'episodic news frame' hold an absolute majority in both stations. From news sources, the group of whistle-blower such as lawyer Kim Yong-Chul and civic groups was confronted with Samsung and state authorities including the Prosecutor, financial agencies. Analysis on the theme of news coverages demonstrated 5 frames: 'public announcing frame', 'news of conflict frame' 'demanding a close inquiry frame', 'declaration of conscience frame', 'causing social upheaval frame', Analysis result shows that 'public announcing frame' was most frequently used in reporting and there was distinction between KBS and SBS in 'declaration of conscience frame' and 'causing social upheaval frame'. Relatively KBS preferred 'declaration of conscience frame' and SBS would use 'causing social upheaval frame', from which reciprocal relation as media ownership could be analogized. Both media tend to make light of in-depth news coverages on structural issues or essential settlement and it is shown that both stations treated this situation with intriguing audiences as stressing sensitive parts in this event. Follow-up of changing process of 'declaration of conscience frame' through diachronic analysis on framing informs that additional exposure of 'Lee Yong Chul', former secretary in Nov 19, 2007 influenced increasing of frequency of using 'declaration of conscience frame'. However, news reporting on whistle-blower in KBS and SBS generally adheres to passive attitude of following changes in the surroundings rather than playing an active role in improving social recognition on whistle-blowing, which can induce to the spread of negative

feature on it. Thus it is assumed that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should regard whistle-blowing as contradiction in social structures and active depth reporting seems to be needed for improving social recognition on whistle-blowing.

Key words: frame, TV News, Whistle-Blowing, Samsung